

세호마린, 연료전지 유람선 설계 개발

http://www.asiasis.com/news/news_kr_view.php?idx_no=56917 **기사**



울산 소재 유일의 종합 선박 신조 및 개조 엔지니어링사인 세호마린솔루션즈(주)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 중형선박설계사업단과 공동으로 40인승 수소연료전지 유람선 기본설계 개발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대속도 10kts, 항속거리 14NM의 성능 조건으로써 저수심 운항을 고려하여 주 추진 기관은 워터젯으로 선정했다.

동사는 앞으로 무탄소 연료인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연료전지 추진 선박이 연근해 주력선의 하나로 제시될 것이며 이번 연료전지 유람선 기본설계 개발은 동 분야에 또 하나의 초석을 놓았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시장 내 다양한 플레이어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수소연료전지 선박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임을 표명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해군 잠수함 예인정 개념설계를 공급한 데 이어 연료전지 추진 유람선 기본설계를 개발하는 등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설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동사는 LNG 이중연료추진선 개조 사업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LNG 이중연료추진선 개조 설계에 대해 ABS(미국선급협회)로부터 AiP(기본설계승인)를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 IMO MEPC 76차 회의에서 개정된 '선박대기오염방지규칙'에 의거, 자사 보유선에 대한 EEXI 및 CII 관련 도움이 필요한 선사는 동사를 통해 EEXI Calculation Service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에서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소형선박으로 수소연료전지선박 상용화 실증을 시작하는 등 수소연료전지 선박 운항 관련 기술 개발 및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울산 관내 기업, 산하기관, 연구소 각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본 정보서비스에 관한 지적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일간조선해양" 혹은 정보 제공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정보서비스는 방법의 여하, 유·무상을 불문하고 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혹은 이용시킬 수 없습니다.